

ehousing

www.ehousing.kr

TOTAL INTERIOR MONTHLY MAGAZINE **이하우징**

SPACE

La casa di Hestia
청담린든
인왕산 한신휴플러스
Messner
VyTA Covent Garden
Lluvia
RIVER HOUSE

CRAFTS

2019 공예디자인 스타상품 출시

TREND

DOMOTEX 2020

REVIEW

MAISON&OBJET PARIS JANUARY 2020

MARKET REPORT
2020년 주택시장 전망
EXHIBITION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2019

cover story_ La casa di Hestia
제공: 하우스만



20 20 03
VOL.238 march

대담한 컬러와 패턴으로 압도하는 공간 VyTA Covent Garden

에디터 박하나 제공 COLLIDANIELARCHITETTO

프로젝트명project_VyTA Covent Garden
위치location_21 The Market, Covent Garden-WC2E 8RD London-UK
건축architect_COLLIDANIELARCHITETTO
면적area_underground level: 235sqm / ground level: 35sqm + 110sqm dehor
/ first level: 100sqm + 30sqm terraces / interiors total area 370sqm; exterior total area 140sqm
/ total area 510sqm
시공 및 구조 작업construction and structural works_CJN Concept limited
구조설계structural design_Richard F. Gill & Associates LLP
사진photo_©Matteo Piazza (www.matteopiazza.com)





previous page. 거리 예술가들로 가득한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VyTA Covent Garden. 커다란 흰색 파라솔 아래의 녹색 테이블과 의자는 바쁜 도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다.
left page. 지하층은 미래파 화가 자코모 발라의 작품과 그의 역동성에서 영감을 얻은 폴리크롬 대리석 마름모 바닥이 멋스럽게 장식되었다. 아치형 천장과 초록색으로 레커칠 된 벽, 그리고 황동 마감재가 어우러져 웅장한 공간을 완성해냈다.
this page. 계단은 금색 벽지 위로 대형 황동 잎사귀 모양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낸다.



Eclecticism and experimentation are the fundamental ingredients at VyTA Covent Garden: wooden walls and lacquered surfaces, inlays and friezes, glass and precious metals shape glamorous spaces wholeheartedly express unconventional Italian style. The interior design draws heavily on the Italian architectural culture of the Sixties, from which it takes its refinement of the construction and decorative details, the conception of the space as a living set, and the cocktail of elegance and irony in its geometric stylizations.

Organized on three floors, with a large outdoor area overlooking the square, which brims with street artists, and two terraces on the upper floor that serve as lounge bars, VyTA Covent Garden presents quintessentially elegant and sophisticated environments.

Through a Victorian-style window, consumers enter a vestibule, where the staircase with its rosewood steps – the heart of the historic building's renovation – winds seamlessly around a robust septum in green Alpi marble, which visually and physically connects the different levels. Gold-coloured wallpaper adorns the stairwell, dominated by an ethereal chandelier with macro brass leaves.

The lower floor, intimate and welcoming, houses several rooms with vaulted ceilings, once used as storage areas for the shops above. The polychrome marble floor, inspired by the artworks of the futurist painter Giacomo Balla, and the dynamism of his design composed of

over 7,000 rhombuses and half-rhombuses in marble, brings continuity and fluidity to the rooms, fragmented by the original structure. White lacquered vaults with rhombus and circle decorations dominate the succession of private spaces and niches, wrapped in lacquered walls with friezes and mirrors that amplify the space, accompanying the client on a discovery of surprising underground London. Enveloping linear sofas, velvet-upholstered chairs in burgundy and pink peony, and glass tables with brass finishes, complete the heterogeneous design of the rooms.

The upper floor interacts with the city through large windows. In the main room, mirrored surfaces amplify the space, while precious materials such as rosewood, brass, glass and velvet, invite guests to immerse themselves in a contemporary atmosphere. The cocktail bar is dominated by a counter clad with polished brass tubes and a shelf in green Alpi marble, where wine tastings and signature cocktails are passionately prepared by nimble bar tenders.

Two terraces, facing North and South respectively offer an unusual open-air experience in London. The first, more intimate, is equipped with sofas, coloured metal tables and large flower-filled vases; the other, which is larger in size, features a long counter and emerald green metal stools, and is visually projected towards the iconic Covent Garden dome and the vivid life of the square.



left page, 1층 메인 룸의 벽은 거울을 설치해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며 자단, 황동, 유리, 벨벳 등 값비싼 자재들로 현대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this page, 칵테일 바는 황동 튜브로 덮인 카운터 위에 그린 알피 대리석을 적용하여 한층 고급스럽다.



비타 코벤트 가든(VyTA Covent Garden)의 근간은 절충주의와 실험 정신이다. 나무 벽과 래커, 인레이와 프리즈, 유리와 귀금속 장식이 공간에 우아함을 한층 더해주며 색다른 이탈리아 스타일을 표현해 준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60년대의 이탈리아 건축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건축 스타일과 장식적인 디테일, 리빙 세트로서의 공간 개념, 기하학적 스타일에 우아함까지 겸비했다.

VyTA Covent Garden은 거리 예술가들로 가득한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 또한 넓은 야외 공간과 2개의 테라스가 있는 세 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아하고 세련된 환경을 제공한다. 빅토리아 양식의 창문으로는 손님이 현관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관에 설치된 자단 계단은 견고한 대리석 격벽을 부드럽게 감아 돌며 서로 다른 층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연결한다. 계단을 장식하는 금속 벽지 위로 대형 황동 잎사귀 모양 샹들리에들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만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하층은 본래 위층 가게의 창고로 쓰였지만, 이제는 아치형 천장이 있는 여러 개의 방이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미래파 화가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의 작품과 그 속의 역동성에서 영감을 얻은 폴리크롬 대리석 바닥은 7,000개가 넘는 대리석 마름모와 삼각형을 배치해 기존 구조를 해체하면서도 방에 연속성과 유동성을 부여한다. 초록색으로 래커칠 된 벽에는 프리즈와 거울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이 시각적으로 훨씬 넓어 보인다. 또한 마름모와 원형 장식이 돋보이는 벽과 백색으로 래커칠 된 아치 천장이 공간을 서로 연결하고 있

어 방문한 손님에게 런던 지하의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이곳은 작약 을 닮은 진홍색 벨벳 천으로 된 리니어 소파와 의자, 그리고 황동 마감 유리 테이블이 어우러지며 방의 언밸런스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VyTA Covent Garden은 위층의 큰 창문을 통해서도 도시를 감상할 수 있다. 1층 메인 룸은 거울 덕분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며 자단, 황동, 유리, 벨벳을 비롯한 값비싼 자재들로 장식된 현대적인 분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칵테일 바에 들어서면 우아한 황동 튜브로 덮인 카운터 위에 그린 알피 대리석이 놓인 바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숨겨진 바텐더가 열정적으로 시음 와인과 시그니처 칵테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쪽과 남쪽을 향한 두 개의 테라스는 각각 런던에서 독특한 야외 경험을 제공한다. 첫 번째 테라스는 오렌지 컬러의 소파, 그린 컬러의 금속 테이블 및 큰 꽃으로 채워진 꽃병을 갖추고 있다. 다른 하나는 크기가 크고 긴 카운터와 에메랄드 녹색 금속 의자가 특징이며, 상징적인 코벤트 가든 돔과 광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투영한다.

마지막으로, '비타 가든'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은 야외 구역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커다란 흰색 파라솔 아래의 녹색 테이블과 의자는 숨 막히도록 바쁜 도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를 연출한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표면을 장식하는 기하학적 패턴, 대담한 색상, 눈에 띄는 벨벳 가구 및 금속 라운드 램프를 통해 창의적인 영감과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this & right page_top. VyTA Covent Garden은 표면을 장식하는 기하학적인 패턴, 대담한 색상, 벨벳 가구 및 금속 라운드 램프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오묘하게 조합된 창의적인 공간이다.
this page_bottom. 테라스는 오렌지와 그린 컬러로 싱그러운 분위기를 드러낸다.



this page_bottom. VyTA Covent Garden—First floor 도면.

